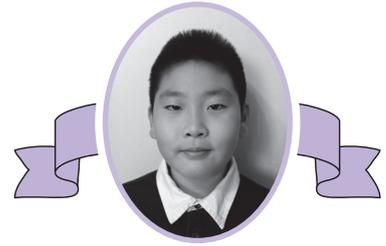


동상





서준이 형에게



임하준 | 창원 자여초등학교 2학년

서준이형, 안녕? 나 임하준이야. 잘 지냈어? 우리 동네 아름다운 산책길을 소개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되었어. 그 산책길은 우곡사라는 절까지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약 한 시간 정도 걸려. 걸어가다 보면 저수지가 나와. 저수지에는 오리도 있고, 물고기도 많고, 자라도 있어. 처음에 자라를 봤을 때 신기하고 귀여웠어. 그리고 어떤 날엔 올라가다가 뱀을 본 적도 있었어. 뱀이 돌 사이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. 또 어떤 날엔 나무구멍 속에 있는 청설모도 봤었고 다람쥐가 쪼르르 달러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. 너무 귀여웠어. 하루는 엄마랑 산책하고 있는데 모기가 내 팔에 붙어있어서 내가 탁! 잡았어. 모기가 피를 잔뜩 먹었었어.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엄청 큰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. 너무 징그러웠어. 우곡사에 도착해서 시원한 약수를 마셨어. 이 약수는 깨끗하고 좋다고 소

문이 났대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약수를 받아 가. 우곡사에서 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소리도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차분해져. 힘들게 올라온 뒤 먹는 간식은 엄청 맛있고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꼈어. 자주 와서 새소리도 듣고 쉬기도 하고 약수도 마시고 싶어. 내려가는 길에는 기분도 좋아지고 올라올 때보다 더 빨리 내려갔어. 나는 시원한 나무가 있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다양한 동물과 곤충들을 볼 수 있는 이 길이 참 좋아.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형이랑 이곳에 꼭 같이 와보고 싶어.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. 그럼 안녕.

2020년 9월 28일 하준이가